

신장 이식을 받은 소아에서 발생한 재발성 급성 췌장염 1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홍은희 · 심예지 · 김미영 · 이환석 · 조민현 · 고철우

Recurrent Pancreatitis after Kidney Transplantation in Children

Eun Hui Hong, Ye Jee Shim, Mi Young Kim, Hwan Seok Lee, Min Hyun Cho, Cheol Woo Ko

Department of Pediatr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서론 : 신장 이식 환자에서 발생하는 급성 췌장염은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 중의 하나이다. 신장 이식을 받은 소아에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재발성 급성 췌장염 1례를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10세 된 여아로 2002년 10월 경북대병원 소아과에서 시행한 신장조직검사 상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FSGS)을 진단 받았으며, 이후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 2004년 3월 어머니를 공여자로 하여 신장이식을 시행 받았다. 이후 Tacrolimus, Corticosteroid, Mycophenolate Mofetil 등의 면역억제제를 투여하며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던 중 이식 후 20개월째 수두에 병발한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하였다. amylase 358 U/L, lipase 2214 U/L, BUN 45 mg/dL, Creatinine 1.5 mg/dL, Varicella-Zoster virus (VZV) IgG/IgM +/+ 이었으며 자기 공명 영상에서는 췌장의 전반적인 부종이외에 선천성 기형소견은 없었다. 금식, 총비경구적 영양요법(TPN) 및 Gabexate mesilate 등의 치료 후에 증상 및 검사실 소견이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이후 amylase 53-124 U/L, lipase 294-522 U/L 정도로 유지 되었다. 이식 후 34개월째 1주간의 메스꺼움, 구토, 상복부 통증으로 다시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amylase 365 U/L, lipase 2618 U/L, 입원 7일째 amylase 807 U/L, lipase 9534 U/L까지 증가하였으며 adenovirus IgG/IgM +/+ 이었다. 금식, TPN 및 Gabexate mesilate 등의 치료 후에 증상 및 검사실 소견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2007년 3월 현재 amylase 102 U/L, lipase 477 U/L까지 감소되었으며 특별한 증상 없는 상태이다.

결론 : 신장 이식 환자에서 발생하는 급성 췌장염은 바이러스 감염, 특히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재발될 수 있으며 소아 신장 이식 환자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